

### 큰 스님 수행한담

# 모든 망상 없어집니다”



◇ 호랑이까지도 와서 법문을 들을 정도로 도력이 높았던 경하스님(오른쪽), 사진 찍을 당시 노스님의 세수는 89세, 고통스님(왼쪽)은 26세였다.

런 경계가 다 떨어져 버리니 화두는 곧 생명이고 광명이며 지혜고 문수입니다. <금강경>의 이상적달분(離相寂滅分)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납니다.

약보살(若菩薩)이 심주어법(心住於法)하고 이행보시(而修行)하면 여인(如人)이 입암(入闇)에 즉무소견(則無所見)이니라. 약보살(若菩薩)이 심불주법(心不住法)하고 이행보시(而修行)하면 여인(如人)이 유목(有目)하고 일광(日光)이 명조

간에 속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도리는 제가 공부를 해봐서 잘 압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는 반드시 세간사 어떤 일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남아 있으면 내가 공부 안돼요. 그게 다 떨어진 순간이 바로 발심입니다. 은사이신 영월스님은 일광생 참선만 하신 분입니다. '참선공부만 하라'는 스님의 경소 지론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죽어서 뭐 할래? 공부하라'는 스님

## “태풍부는 바다에 배 띄우면 파선하듯 집착 그대로 두고 발심해야 헛공부 팔만사천 번뇌 사그라뜨리려면 ‘나’를 버리는 정진 있어야 합니다”

며 계속 부탁하시는 바람에 응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소변 받는 일을 약 3년간 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일은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인연따라 일어나지 않는게 없고 내 마음이 지어내지 아니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탈을 하면 인(因)에도 걸리지 않고 과(果)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일체의 현상이 다 내 마음작용이 씨가 되어 일어나며 인연과보에 응하여 발생합니다. 경하스님과 인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기 보다 시봉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인내와 하심하는 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문이란 공식적상에서만 전해지는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되는 커다란 짐을 갖고 와서 한손으로 스님의 머리를 꼭 잡고는 '이놈, 꼬짜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꼭 짚는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잠을 깰 겁니다. 이날 이후로 등창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독성님과 인연으로 해인사에 오신 경하스님은 경학에도 능하고 전제도 받는 등 대종사가 되셨습니다. 해인사주지도 2번이나 하셨습니다. 하루는 통영에서 49재가 들어왔는데 재주(齋主)가 여타 중진스님들을 제껴놓고 경하스님더러 49일간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백련암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서는 포효를 하는 바람에 대중들이 재를 잘못 지냈는 줄 알고 겁을 집어먹고 크게 당황했어오. 경하스님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화엄경)을 설하니까 산신(호랑이)이 신심이 나서 이러는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호랑이가 스님앞에 오더니 납죽 엎드렸습니다. 스님이 호랑이더러 저쪽으로 가라고 지시하니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49일내내 계속 와서 법문을 듣더니 재가 끝나자 은데간데 없어 사라져 버렸답니다. 경하스님을 시봉하는 동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 호랑이도 감명시킬수 있는 신심을 가진 불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극한 불심앞에서는 미물이나 천지자연도 저절로 감동하게 마련입니다. 근본 마음자리에서는 시방세계 어느 한구석 통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집착을 티끌도 남김없이 완전히 놓아 버리면 곧 우주심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달리 삼매를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모든 집착을 놓는 일은 아상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라는 생각, 내것이라는 소유심이 팔만사천 번뇌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망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가 좋아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부리를 잘 다스리면 망상은 없어집니다. 거부함이 없이 망상의 실체를 반조하십시오.

## “일체가 다 스승이고 일체처가 다 법석이죠” 근본 마음자리에서는 시방세계 두루 통해

(明照)하야 견(見) 종종색(種種色)이니라. (만약에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속에 들어가 아무 것도 못보는 것과 같고, 만약에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의 눈이 있고 햇빛이 밝게 비쳐 가지 가지의 색을 볼 수 있듯이)

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책을 보고 경학을 공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참선수행 일반도의 외풍은 스님의 열반승에도 잘 나타나 있어 지금도 노상 위유고 있습니다.

八十人問事 德如夢中夢  
古路依然然 山上白雲歸  
한광생 사람일이 꿈속의 꿈이로다  
변함없는 옛길따라 흰구름 들어가네

내가 25세되던 무렵 회랑대에 경하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일어나다 현기증으로 쓰러지셨는데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거동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노스님이 제 은사이신 영월스님한테 시봉을 부탁했는데 제가 그 소임을 맡게 됐어요.

노장님이 시봉을 받으시다 미안해서 안 되겠다며 저더러 법상좌가 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

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체가 다 나의 스승이고, 일체처가 다 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하스님은 독성님(나쁜본자)과 인연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경하스님의 은사이신 우런스님이 상좌가 없어서 독성님에게 1주일간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시작한 지 1주일 되던 날 초라한 행색의 한 젊은이가 올라오는데 스님이 되고자왔다고 해요. 시원함을 보였는데 기도회향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경하스님입니다. 경하스님은 당시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던 등창(중기)이 있어서 절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나 신심이 깊던지 아주 신명나게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그랬답니다.

어렸을 때 경하스님이 들어오고 나서 절에 불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눈도 사고 발도 사고 부자가 됐어요. 하루는 경하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웬 노인이 환몽도 더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박순달

#### 4대와 原子

원시불교 이후부터 단합하여 유지되던 승가단은 사회변천과정에서 생겨난 법의 해석과 계율의 완화문제에 점차 보수와 진보사이에서 과리가 생기기 시작해 불멸후 100년경에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나뉘게 된다. 불멸후 300여년 후, 즉 기원전 1세기 때는 불교의 부파가 20여개로 늘어났다. 부파불교 시대의 기본적인 문헌에는 <발지론>과 <대비바사론> 등이 있다. <발지론>은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책이고 <대비바사론>은 이 책의 주석서로 200권으로 된 한역본이 있다. 부파불교 시대에 일체에 대한 개념으로 5온(蘊), 12처(處), 18계(界) 등을 꼽는다. 일체란 모든 법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18계란 12처에 6사를 합한 것이다. 각 온은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5온, 12처, 18계의 일체분류에 있어서 5온은 물질부분이 색 하나로 돼 있고 12

#### 4대설

명하고 있다. 지대(地大)에 대해서 내면의 견성이란 탈, 손톱, 치아, 뼈와 같이 몸안에 있는 견고한 것들을 말하고 외면의 견성이란 산, 땅, 초목, 철, 금, 진주, 산호 등 물외의 자연계에 있는 물질 등을 말한다. 수대(水大)에 대해서 내면의 습성이란 눈물, 혈액, 뇌 등 몸에 있는 액체 등을 말하고 외면의 습성은 강물, 샘물, 바닷물 등과 같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 등을 말한다. 화재(火大)에 대하여 내면의 난성이란 열기이고 외면의 난성은 햇빛, 태양열 등 자연계의 열기를 말한다. 풍대(風大)에 대해서 내면의 동성은 몸 안에서 부는 바람인 심형풍과 하형풍이고 그 밖에도 숨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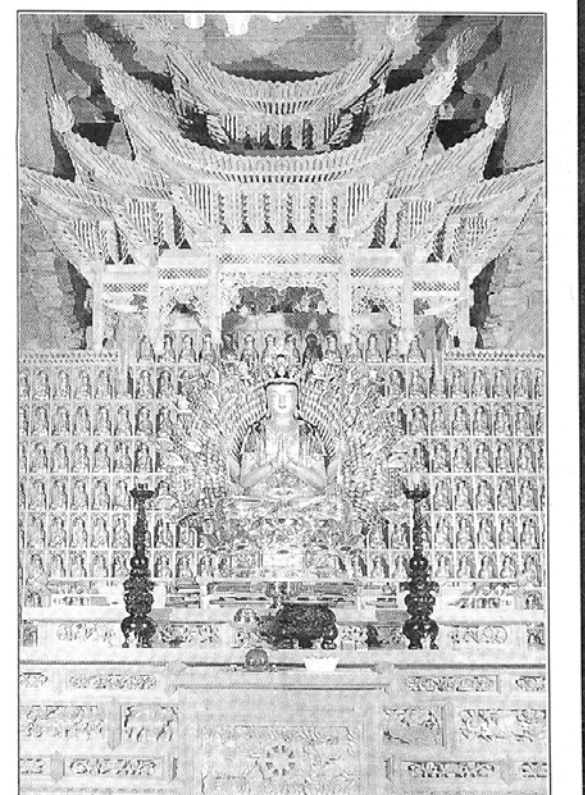
## 4대 모든 물질 발생시키는 씨앗 역할 부파불교시대 발전 '대비바사론' 설명

처, 18계에서는 6근중 5근과 6경이 물질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대는 지, 수, 화, 풍을 말하는데 이 개념은 기원전 8세기 우파니샤드시대 때 이미 형성된 것으로 모든 물체의 바탕이 되는 원소이다. 그전에는 지(地) 하나였던 것이 점차 분류되어 지, 수, 화, 풍이 되었다. 4대는 지수화풍의 사대(事4大)와 견고성(堅固性), 습윤성(濕潤性), 온습성(溫濕性), 행동성(行動性)의 성4대(性4大)가 있는데 이 두 4대의 관계에 대해 지는 고체성인 견성(堅性)을 가지는 것, 수는 액체성인 습성(濕性)을 가지는 것, 화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난성(熱性)을 가지는 것, 풍은 운동하는 동성(動性)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4대가 모든 물체를 발생시키는 씨앗의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4대種이라고도 칭한다. 대중은 비유로 천제(天帝)와 같은 성능이 있으며, 모든 물체를 마음대로 만드는 자재천왕(自在天王)과 같고, 해와 달에 해당하는 일월륜과 같으며, 큰 나무의 수심(樹身)에 해당하는 것이고, 큰 장벽과 같아서 조성된 물체는 장벽에서 발생하는 그림자와 동일해 등불과도 같다고 설명한다. 모든 물체는 지, 수, 화, 풍의 4대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란 뜻에서 소조물(所造物)이라고도 칭한

는 입식풍, 출식풍 등이 있다. 외면의 동성은 몸밖의 외부의 바람으로 사방풍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질의 단위에 있어서는 최소의 물체를 극미(極微), 가장 큰 물체를 기세간(毘世間)이라 한다. 기세간이란 우주를 말한다.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그 단위는 극미(極微), 미진(微塵), 신진(新塵), 수진(水塵), 토모진(兔毛塵), 양모진(羊毛塵), 우모진(牛毛塵), 향유진(向遊塵), 기(麤), 솔(蝨), 광맥(礦麥), 지질(指節), 주(肘), 궁(弓), 구로사(俱盧舍), 유선나(毘羅那) 등 16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극미는 물질 가운데서 최소단위로 가장 미세한 물체라는 뜻에서 최세색(最細色)이라고도 한다. 만약 극미를 더 분할하면 곧 공(空)이 된다. 이들 단위는 보통 7배씩 커지며 지절은 손가락의 한 마디, 1주는 손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1공은 4주를 이어 놓는 것에 해당하고 구로사는 활을 400개 이어놓은 거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유선나는 유순(由旬)이라고도 표현하며 인도(印度)에서 거리를 표시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이 유순은 60리의 거리를 뜻한다. 그리고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8구로사를 합한 길이를 1유순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수·산업공학과)



##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